

卷 頭 辭

올해 9月 6日로 鄭熙喆博士님께서 回甲을 맞게 되시어 法學研究所에서는 「서울대학교 法學」 제20권 1호를 鄭博士님의 回甲記念集으로 펴내기로 하였다. 鄭博士님께서 지난 22년간 서울大 教授로 몸담고 계시면서 수많은 著書와 論文을 發表하시는 등 學問研究와 後進養成에 心血을 바치시었고 또한 우리나라 法學界의 巨星으로서 商法學의 發展을 위하여 많은 業績을 남기셨다.

鄭博士님께서 重厚한 人品과 該博한 知識을 지니신 師表로서 뿐만 아니라,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長으로 在職하시면서 學術書籍 및 學術誌의 간행, 法學研究의 지원, 세미나의 개최 등에 크게 기여하시었다. 豫定發刊 卷數 總 63卷에 달하는 法學全書의 發刊과, 法學教育의 方法에 있어서 lecture-method 置重에서 탈피해서 case-method에 의한 講議가 되도록 이에 필요한 우리나라 初有의 判例教材 시리즈가 아세아財團의 財政支援으로 刊行되게 하는 데 鄭博士님께서 主導的인 役割을 하시었다.

앞으로 鄭博士님의 健康하심과 더욱 깊은 學問의 世界가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여기에 未洽한 冊子를 奉呈한다.

平素 존경하는 鄭熙喆博士의 回甲記念集이 빛날 수 있게 玉稿를 許與해 주신 여러 教授님들께 감사드린다.

1979년 8월

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所長

金 致 善